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아침 연속극 속의 여자들(1)

‘사무실 여자’들이 본부인을 위협한다

궁지에 몰리는 조강지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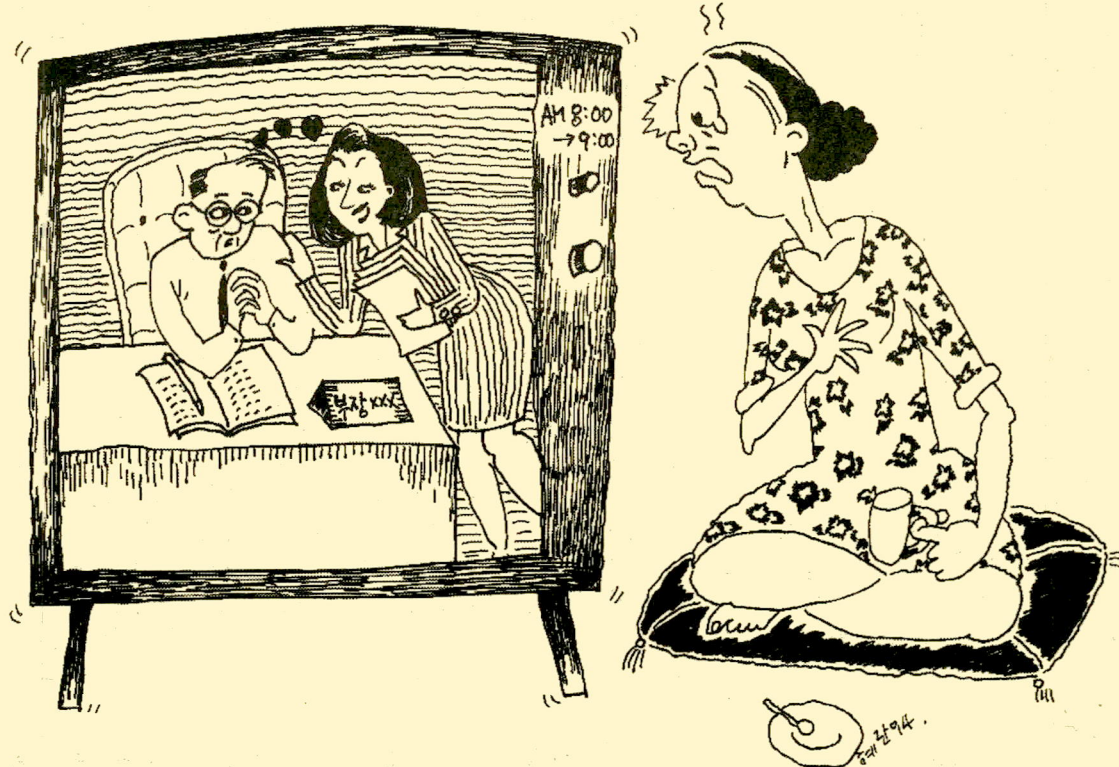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의 시간대는 주부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 시키고 나서 막 한 숨을 돌리고 있을 시간이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노동의 긴장을 풀고 싶은 주부들의 손길이 가장 쉽게 가는 곳이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는 시간은 많은 주부들에게 ‘자기만의 시간’으로 허용된 유일한 휴식 시간이기 십상이다. 주부들은 특히 아침 시간대에 방영되는 연속극을 즐겨 본다.

주부들의 피학적 쾌락주의

그러나 요즘 방영되는 아침 연속극 속에 등장하는 주부의 위치는 형편없이 위축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 새벽부터 아이들도 시락 싸고 남편 챙겨 내보내고 나서 한숨 돌리고 싶은 주부들이 즐기기에 그 연속극들은 잔인하리만큼 가정주부의 보금자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가정주부들은 이 아침 연속극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침부터 짜증이 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 “그렇지만 매일 아침 보게 된다”고 덧붙이기를 잊지 않는다.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조강지처로서의 자부심에 상처를 받고 괴로와 하면서도 텔레비전 스위치를 끌 수 없는 우리 주부 시청자들은 이미 ‘피학적 쾌락주의자’로 길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윤리성 문제는 종종 등장하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방영중인 아침 드라마들은 남편의 외도를 줄거리로 하면서도 젊고 유능한 직장여성들이 ‘가만히 있는’ 유부남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조강지처의 자리에 있는 여성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부들의 가장 예민한 감성을 자극한다.

채널 돌러가며 외도 이야기에 폭 빠져

현재 아침시간대에는 KBS의 <사랑 그리고 이별>이 8시 20분에, SBS의 <여자의 거울>이 8시 40분에, 그리고 MBC의 <자매들>이 9시에 방영돼 약 1시간 동안 주부들은 채널을 돌러가면서 일일 연속극을 시청할 수 있다.

8시 20분에 방영되는 <사랑 그리고 이별>에 등장하는 조

강지처는 유방암에 걸린 환자인데 가족들한테 이 어두운 그림자를 알리지 않으려는 헌신적인 어머니상이다. 이 조강지처의 안쓰러운 처지는 남편을 유혹하는 젊은 직장여성의 등장으로 더욱 강조된다. 아내의 신상에 대해 무심한 남편의 사무실에 등장한 여직원은 남편을 유혹한다. 퇴근할 무렵에 저녁을 사달라고 주문하기도 하고 술을 사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남편이 뿌리치려고 해도 ‘당신이 날 좋아하는 것을 다 안다’면서 계속 유혹적인 몸짓을 그치지 않는다.

<사랑 그리고 이별>을 보는 주부들은 유방암에 걸린 불쌍한 조강지처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 아내의 입장이 되어 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주부들은 미혼의 직장

여성에게 적개심을 느낀다. ‘가정이 있는 남자인 줄 뻔히 알면서’,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유혹하는 나쁜 X’이라는 욕이 절로 나온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저쪽의 여자는 우선 자기보다 젊고, 예쁘고, 자기는 모르는 남편의 직장일의 세계를 공유하는 ‘막강한 실력자’임에 틀림없다. 그 여자의 행동에 분노하지만 객관적인 여자의 기준을 적용해 본 자신의 점수란 형편없다. 그로 인하여 나 이 들어가는 주부들은 위축되고 쪼그라든다.

젊은 직장여성의 유혹 나이 든 주부는 외롭다

한 50대 주부 시청자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소외감을 느끼는데 연속극에서 전

은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남자를 유혹하는 걸 보면 더 자신이 없어진다. 왜 아침시간에 주부가 병 들고 남편을 잃어가면서 불행해지는 걸 보여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 드라마에서 젊은 미혼의 직장여성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상처를 입은 주부들은 그다음 채널을 8시 40분에 시작하는 <여자의 거울>로 돌린다. <여자의 거울>은 더 유능하고 재력까지 겸비한 젊은 여사장이 본부인을 물리는 경쟁자로 등장한

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다는 이 젊은 미혼의 여사장은 인텔리이며 사업 파트너로서 자격도 훌륭한 ‘사회인’이다. 여기서도 외도의 시작은 여자다. 남편은 ‘난 부인이 있는 남자’임을 밝히며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라’고 충고하는 ‘선량한’ 중년이다. 그러나 이 유능한 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부남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 ‘찰싹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본부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다. 남편이 여사장과 관계를 정리하고 본부인에게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있는 참인데 집을 비운 것이 본부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주부시청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 이 드라마에

서도 가정에서만 살아온 본부인은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의 애정행각에 상처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다.

신경증 환자로 전락한 본부인들

9시에 시작하는 <자매들>이라는 드라마에도 ‘사무실 여자’에 의해 상처받은 본부인이 등장한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다섯 자매 중에서 둘째의 삶이 그렇다. 결혼 전에 남편이 잠깐 알았던 ‘사무실 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당신의 아이가 있다’고 선언하고 남편 근처에 머무르면서부터 본부인의 상처는 시작된다.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올 무렵쯤 다시 그 ‘사무실 여자’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편의 귀로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서의 본부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결벽증과 의부증 같은 신경정신과적 증세를 보인다.

이들 드라마는 사전에 의논이라도 하고 만들어진듯이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우선 주된 갈등은 남편의 외도이다. 둘째, 남편의 외도를 발생시키는 원인제공자는 일을 가진 여자들, 즉 ‘사무실 여자’이다. 셋째, 이 ‘사무실 여자’들은 상대편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혹한다. 넷째 가정주부인 본부인은 남편의 외도에 의해 갈등하고 상처받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계속>

(김희선 기자)